담양군 딸기 '메리퀸', 유통 전문가 대상 시식평가 호평

빠른 수확기 · 과실모양 · 당도 · 경도 등 장점

담양군은 최근 농촌진흥청과 함께 가락시장 경매사와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담양 딸기 신품종 '메리퀸'에 대한 시장성 평가회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개최했다.

메리퀸은 '설향'과 '매향'을 교배한 촉성재배 품종으로 11월 하순이면 첫 수확이 가능해 수확기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당도가 높아 맛이 좋고, 경도 역시 높아서 3월에 기온이 올라가면 쉽게 물러지는 다른 딸기와는 달리 메리퀸은 단단하고 식감이 좋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확해 소비자 식탁에 올라가기까지 고품질을 유지한다.

가락시장에서도 '메리퀸' 시식평가 후 품질을 두고 호평이 주를 이뤘다. 다만 최대 관건인 도매시장 연착륙의 조건으로는 재배면적 조기 확대가 꼽혔다.

육성자인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이철규 박사는 "고당도 고경도 딸기 품종인 '메리퀸'은 우수한 맛에 저장성까지 갖춰 소비자와 유통인 모두에게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며 "최대 관건인 '메리퀸' 재배면적 조기 확대는 올해 담양 딸기 명품화 단지 조성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2013년 육성한 딸기 '죽향'을 통해 이미 딸기 시장에서 '명품 딸기'로 호평을 받고 있다. '메리퀸'은 2017년 농가보급을 시작으로 작년기준 재배면적은 8ha이며 올해 딸기 단지 조성 이후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흥군, 2019년 친환경 유용미생물 130톤 공급

고초균 등 7종 연중 상시 공급

장흥군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2019년에도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130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급중인 유용미생물은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 등 7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유용미생물은 토양유기물 분해촉진, 질소고정 등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해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가축의 소화 흡수율 증진, 축사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미생물이다.

광합성균은 가축의 면역력 증진과 축사 악취 제거, 작물 생장 촉진에 도움을 준다.

고초균은 퇴비발효, 유산균은 가축 유해균 억제로 면역력 향상, 효모는 아미노산, 비타민 등 필수적 물질을 생산한다.

그러나 아미노산액비는 미량요소 복합제재로 등록되어 있어 친환경 재배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014년부터 유용미생물을 사용해 온 장동면의 김재기(자연농자재연구회 회장,장동) 농가는 "유용미생물을 사용한 뒤로 작물이 튼튼해져 병충해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고추가 아삭해져서 맛도 좋아졌다"며 다른 농가에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의 확산과 농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앞으로 친환경 농가 대상으로 무상 공급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은 연간 130톤 이상 생산 가능한 규모로 2014년에 설치되어 꾸준히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포장단위는 2 l, 10 l로 1당 300원에 공급된다.

화순군,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전국 군 단위 1위…'굿모닝 민원실' 운영 등 호평

화순군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동안 지자체의 민원행정 체계와 개별 민원 처리 실태, 5개 유형으로 분류한 추진 시책 운영 성과와 만족도를 평가한다. 5개 유형은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 민원처리, 민원 만족도다.

이번 평가에서 화순군은 최우수 등급을 받고,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화순군은 그동안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왔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무인발급기 100% 설치, 임산부·노약자 등을 위한 배려 창구 마련, 점자책자와 확대경 등 편의용품 비치, 굿모닝 민원실 운영(08시 30분부터 업무 시작),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여권 무료 배달 서비스 시행, 유기한(有期限) 법정 민원의 신속처리 등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고충 민원 분야는 민원 처리 기간 준수율이 99%로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충 민원처리 실태도 전년 대비 19.08점으로 향상돼 이번 평가에서 가점을 받았다. 화순군은 맞춤형 민원정책 수립과 운용,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민원 서비스, 민원 불편 사항 등을 꾸준히 개선해 호평을 받았다.

화순=박순철 기자

완도군 '해양치유 블루밸리 조성사업' 전남도 추천 1순위 최종 선정돼

'완도 해양치유 블루밸리 조성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하는 2019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전라남도 추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은 지역이 주도하고, 다부처 및 다년도 패키지 사업이며 국가균형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한다.

특히, 일자리창출, 공간혁신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자체 자율성, 사업효과성,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지원한다.

전남도에 공모한 결과 11개 시군에서 응모하여 완도해양치유 블루밸리 조성사업 외 1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완도해양치유 블루밸리 조성사업은 해양바이오단지 조성, 해양치유 스마트랩 플랫폼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 해양치유자원 실용화 연구개발, 지역역량 강화 및 주민건강 증진사업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한다.

전남도서 최종 선정한 시범사업은 2월까지 균형위에 제출하며 오는 4월에 최종 확정하여 추진한다.

완도=김광수 기자

여수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힘 모은다

관계기관 간담회…타당성 용역 · 민관 참여 T/F팀 구성 논의

2022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목표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았다.

여수시는 지난 24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동서포럼,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회,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광주전남연구원, 전라남도, 여수시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COP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사항, 민관이 참여하는 T/F팀 운영 등을 논의했다.

도의원과 시의원은 남중권 COP 유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의회차원에서 힘을 보태기로 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권오봉 여수시장)는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남중권 발전을 위해 COP 남중권 합동유치를 공동 건의사업으로 채택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COP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힘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COP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남중권과 전국으로 확산시키자"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영암군, 설 연휴 종합대책 수립

영암군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연휴 기간동안 교통 및 물가안정, 환경, 산불방지, AI·구제역 방역, 재난·재해, 보건진료, 상하수도 등 8개 분야별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먼저, 교통 및 물가안전 대책반은 연휴기간 중 교통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내 운송업체 및 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원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연휴 기간 중 차량 소통상황 및 안전운행 관리와 교통 불편신고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그리고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물가동향 관리와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및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활동을 실시한다.

환경대책반에서는 연휴기간에 특히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고자 생활쓰레기 중점 수거대책을 마련하였다. 주요 도로변 및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취약 지역 일제 대청소 실시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쓰레기 수거일(2월 4일)을 지정하여 연휴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한다.

또한 재난·재해 대책반은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군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보건진료 대책반은 지역 내 보건기관 23개소와 의료기관 24개소, 약국 22개소를 각각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하여 진료공백 및 약국이용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휴기간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은 군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